SM-PTA 가격강세 “한풀 꺾였다”

한국은행, 석유화학이 수출물가 내림세 주도 ... VCM은 4.6% 상승

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의 수출가격이 3.6% 하락하면서 공산품 전반의 수출물가가 1달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.
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3년 9월 국내 공산품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금속1차제품은 상승했으나 국제유가 및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하락으로 섬유·의복 및 가죽제품,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, 일반기계 및 장비제품,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1.3% 하락했다.

석유화학제품은 국제유가 하락 및 원화환율 하락으로 SM(Styrene Monomer) -9.8%, 나프타 -7.6%, 제트유와 등유 -7.5%, Polypropylene -7.3%, 병커C유 -5.5%, TPA(Terephthalic Acid) -4.7%, 경유 -4.5% 등 대다수 석유화학제품이 내려 전체적으로는 3.6% 하락했다.

다만, 일본 일부 석유화학기업의 가동중단에 따른 공급감소로 PVC(PolyVinyl Chloride) 수지와 VCM(Vinyl Chloride Monomer) 가격은 각각 3.5%와 4.6% 상승했으며, 비료 가격도 7.4% 상승했다.

섬유·의복 및 가죽제품 역시 원재료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거래국의 수요감소와 원화환율 하락으로 Polyester직물, 파일편물, 셔츠, 바지, 스웨터, 도포직물 등이 모두 내렸다.

수출물가 등락률(2003.9)

(단위: %)

구분	등락률	주요 품목
섬유/의복/가죽제품	▽1.3	파일편물(-3.8) Polyester직물(-1.1) 바지(-7.3) 스웨터(-2.6) 셔츠(-1.0) 도포직물(-0.6) 비스코레이온직물(-2.5)
석유화학/고무제품	▽3.6	경유(-4.5) 나프타(-7.6) 병커C유(-5.5) 제트유(-7.5) 등유(-7.5) PP(-7.3) SM(-9.8) TPA(-4.7) 비료(7.4) PVC(3.5) VCM(4.6)
금속1차제품	1.2	금괴(4.0) 형강(6.0) 냉연대강(2.3) 아연도강판(1.9) 열연대강(-1.0) 알루미늄판(-1.7) 알루미늄박(-1.8)
일반기계/장비제품	▽1.2	보조기억장치(-4.0) 컴퓨터부품(-1.0) 컴퓨터(-1.6) 사출성형기(-2.8) 프린터(-5.0) 에어컨(-1.0) 냉장고(-1.0) 모니터(0.4)
영상/음향/통신장비	▽0.9	브라운관(-1.0) TV수상기(-2.3) 무선전화기(-2.5) 아날로그IC(-4.7) 카세트라디오(-4.4) 위성수신기(-3.5) D램(1.8) S램(1.5)
운송장비제품	▽0.3	중형승용차(-0.7) 소형승용차(-0.4) 자동차부품(2.1)

† 전월대비

금속1차제품의 수출가격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, 중국 등의 수요증가로 금괴, 형강, 냉연대강 등이 오르며 1.2% 상승한 반면, 일반기계 및 장비제품은 거래국의 수요감소와 기업 간 경쟁격화로 보조기억장치, 컴퓨터부품, 컴퓨터, 사출성형기, 프린터, 에어컨, 냉장고 등이 1.2% 하락했다.

또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품과 운송장비제품도 각각 0.9%와 0.3% 하락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0/20>